

한문, 이두, 한글

Chinese Character, Idu Script, and Korean Alphabet

저자 (Authors)	송기호 Ki-Ho Song
출처 (Source)	대한토목학회지 59(9) , 2011.9, 50-58(9 pages) JOURAN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59(9) , 2011.9, 50-58(9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한토목학회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d=NODE01677843
APA Style	송기호 (2011). 한문, 이두, 한글. 대한토목학회지, 59(9), 50-5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3 17:3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공식 기록은 전통적으로 한문을 사용했다. 그렇지만 우리 말과 문장 구조가 다른 한문을 구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6세기 전반 신라에는 “문자가 없고 나무에 새겨서 신표로 삼는다. 백제를 통해서만 언어를 소통할 수 있다”고 중국 기록에 적혀 있다. 이 무렵에 세워진 신라 비석이 포함 중성리에서 2009년도에 발견되었는데(그림 1), 글자는 판독이 되지만 도대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분쟁이 발생해서 국가가 개입했다는 정도는 알겠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불분명하여 분쟁의 대상이나 주체, 객체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국가 차원에서 세운 비석일터인데도 이 정도의 문장밖에 쓰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통일신라시대에 당나라 과거에 급제하고 국내에 돌아와 어려운 변려체 문장을 구사했던 최치원의 자긍심은 대단했을 것이다. 지금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1. 중성리 신라비(2010. 5.)

우리만 그렇게 아니다. 우리와 어순이 같은 일본의 한문 실력도 신통치 않았던 것 같으니, 임진왜란 때에 일본측에서 보낸 글에는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종종 있었다.



한문, 이두, 한글

Chinese Character, Idu Script, and Korean Alphabet

송 기 호 (Ki-Ho Song)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songkh@snu.ac.kr

명나라 장수 유정이 또 소서행장에게 글을 보내어 타일렸더니, 소서행장이 “...”라고 답했다. <글에 해석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원문을 기록해두어 아는 이를 기다린다.> (『난중잡록』 기사년<1593> 11월)

같은 책 1595년 3월 2일자에도 “글에 해석되지 않는 곳이 많다. 잘못 베껴쓴 것이 아니라면 가등청정의 문장이 변변치 않아서 그런 것이 분명하다”고 적어 놓았다. 남의 글을 가져다 자기 뜻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낄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했던 한문, 이두, 한글의 역사를 여행해보겠다. 고대에 이두식 표기법을 만들고 조선시대에 한글을 창제하여 우리 말을 제대로 표현하려 하였으니, 훈민정음 언해에 “나랏말싸미 등궤에 다라 문자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새”라 한 것은 한문 사용의 답답함을 잘 표현한 말이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가 되면 한자, 이두, 한글을 사용하는 계층이 각기 출현함에 따라, 한문은 사대부의 것이요, 이두는 서리의 것이요, 한글은 부녀자와 하층민의 것이 되었다.

한자는 중국과 접촉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창원 다호리 1호분에서 붓과 손칼이 발견되었는데(그림 2), 이 당시에는 붓으로 나무에 글씨를



그림 2. 다호리 붓과 손칼(2008. 12.)

썼다가 고칠 때에는 손칼로 깎아냈으니 손칼은 지금의 지우개와 같다. 기원전 1세기 무렵에 이 주인공이 쓰던 글은 한자였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교육을 중시했고, 그런 교육을 받은 지배층은 한문에 익숙해져 있어야 했다.

고려는 땅이 넓지 못하지만 백성은 많다. 사농공상 네 가지 백성 가운데 선비를 귀하게 여겨서, 그 나라에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려도경』 민서民庶).

조선시대에 사대부는 한문 문장 가운데서도 순정한 문장을 써야 했다. 진지한 옛 문장을 말한다. 그런데 정조 때에 와서 새로운 문체가 유행했으니, 감각적인 소설 문장, 우스개개 들어있는 장난기 있는 문장, 백화문을 사용한 문장 등이 그것이다. 당시에 인기가 있어서 왕도 읽었던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에 정조는 옛 문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문체반정(文體反正)을 일으켰고, 박지원에게는 죄 값으로 순정한 고문(古文)을 지어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자는 진서(眞書)라 한 반면에 한글은 언문(諺文)이라 하였다. 한자는 진짜 글이요 한글은 속된 글이다. 그러니 고위층에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한문이어야 하는데, 광해군 때에 한 부인이 처음 언문으로 상언하여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논란이 일었다.

의금부가 “죄를 받고 죽은 이흥로의 처 기씨가 언문으로 쓴 단자(單子, 종이)를 가지고 와서 당직청(當直廳, 소송을 담당하던 의금부 소속 관청)에 올렸습니다. 언서로 상언하는 일은 일찍이 전례가 없기는 하지만, 대신에게 관계되고 사정이 절박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을 감히 여쭙습니다”고 아뢰니, “알았다”고 전교했다(광해군일기 2년<1610> 5월 5일).

한글로 된 상언(上言) 즉 왕에게 진정서를 올린 사건이다. 이 언서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계속 논란이 일자, 의금부 관리들이 책임을 지고 왕에게 대죄하였다. 이때 왕에게 아뢴 말이다.

지난번 이흥로 처의 언서 상언을 받아들일 때에 신들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대신에 관계된 일인데다 사정이 절박하기에 그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지금 거듭 물의가 일어나 법을 어기고 받아들인 것이 잘못이라고 합니다. 대개 왕부(王府, 의금부)는 지극히 엄하고 상언은 지극히 중대하여 터럭만큼이라도 법에서 벗어난 일을 용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요, 언서(諺書)의 출납은 일이 매우 외설스러운 뿐만 아니라 후일에 폐단이 될까 싫어서 그럴 것입니다. 신들은 모두 혼미하고 망령되어 법을 받들지 못한 죄가 한둘이 아니라 매우 많습니다.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기에 땅에 엎드려 죄를 기다립니다(광해군일기 2년<1610> 5월 10일).

왕은 이들에 대해서 “대신과 관계되는 일이니 일반 법규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받아들인 것이 옳으니, 대죄하지 말라”고 답했다. 여기서 한글 문서는 외설스럽다고 표현하였다. 외설은 하층민이나 하는 더러운 일이란 뜻이다. 한글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6일 뒤에 다시 의금부 관리를 파직시키고 언서 상언은 돌려주라고 사간원이 왕에게 건의했지만, 왕은 똑같은 대답을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한문은 지식인의 자존심이었지만, 인간사에는 항상 예외가 있다. 조선시대만 해도 왕족이나 사대부 가운데 무식한 사람들이 있었다. 정종의 차남이었던 순평군은 극단적인 경우였다.

세종이 종학(宗學, 왕실 교육기관)을 신설하여 왕족을 모아 글을 읽게 하였다. 순평군은 나이 40이 넘도록 한 자도 알지 못했다. 처음 『효경』을 읽을 때에 선생이 ‘개중명의장제일(開宗明義章第一)’이란 일곱 자를 가르쳤으나 도무지 읽지 못했다. 이에 “내가 지금 늙고 둔하니 ‘개중’ 두 자만 알면 족하다” 하고는 말 위에서도 읽기를 그치지 않았다. 또 종에게 “내가 막힐 때를 대비하여 너도 ‘개중’ 두 자를 잊지 말라” 하였다. 죽을 때 처자를 모아놓고 “살과 죽음이 지극히 큰 일이니 어찌 마음이 쓰이지 않겠는가마는, 종학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주 통쾌하다”고 유언했다(『용재총화』 권 6).

유능한 문신으로서 시 짓기에도 능했던 최숙정(1433~1480)도 경연 담당관으로서 말년에 실수를 해서 실록에 이렇게 적히고 말았다.

시강관 최숙정이 『고려사』 후비전(后妃傳)을 강의해 올렸는데, 읽으면서 구절을 이루지 못하므로 임금이 드디어 그만두게 했다. 최숙정은 시 읊기에 능했으나 성질이 탐욕스럽고 야비하여 남에게 빌린 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성종실록 6년<1475> 11월 13일).

정조 때에 심상규도 곤욕을 치렀다.

내각이 대교를 지낸 심상규의 서면 회답을 아뢰자, 상이 “구두가 떨어지지 않으니 언문으로 번역하고 주해를 달아 올리게 하라” 하였는데, 대체로 곤욕을 주기 위해서였다. 심상규가 글자마다 주해를 달아 올리자, 상이 연신(筵臣, 경연관)들에게 그의 재주를 누차 칭찬했다(정조실록 16년<1792> 11월 3일).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일본, 베트남은 모두 어순이 다른 한문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문자를 가져와 토착화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향찰 및 이두가 생겨났고, 일본에서는 가나, 베트남에서는 쯤놈을 고안해냈다. 이두(吏讀)는 말 그대로 서리들이 쓰던 문장 형식으로서, 한문에 우리말식으로 한자 토를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친행작헌례교시시(親行酌獻禮敎是時)’에서 ‘교시’는 ‘하옵실’로 하여 ‘친히 작헌례 하옵실 때’로 읽고, ‘십량시백호(十兩是白乎)’는 ‘10냥이옴기로’로 읽는 식이다. 줄친 부분을 빼면 순수 한문이 되는 것이고, 합치면 이두문이 된다. 신라시대에는 향가에 보이듯이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해서 우리 말을 표현하는 것이 두루 쓰였다. 처용가에 ‘밤드리 노니다가(夜入伊 遊行如可)’처럼 한자의 음과 훈으로 우리 문장을 표현한 것으로서, 이런 향찰은 고려 전기를 지나면서 사라졌다. 반면에 이두식 표현이 서리들에 국한되어 사용되면서 고려 후기에 이두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다.

유성룡이 “우리나라 이두는 설총이 창제한 것이라 하는데,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고 아뢰니, 이현국이 “이두가 있었기에 아전들이 모두 문자를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없었다면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고 아뢰었다(선조실록 30년<1597> 5월 27일).

여기서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왕운기』에서 처음 언급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두가 이미 사용되었고, 설총은 다만 이를 정리하여 표기법을 통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에서 교서를 내릴 때에는 널리 읽히도록 이두나 한글로 바꾸어 공포하는 일도 모색했다. 임진왜란이 갓 일어나 마음이 급할 때 왕이 내린 지시이다.

황해도에 내릴 교서를 이미 지어왔는데, 선비들은 스스로 알아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 같다. 이 교서는 선비들이 있는 곳에 공고하여 깨우치도록 하라. 또 이두를 넣고 겹가지 말은 제거하여 조정의 방문(榜文)을 많이 만들고, 또한 의병장이나 감사 등에게 언문으로 번역하게 하여 시골 백성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라(선조실록 25년<1592> 8월 1일).

조선 초기에 향리가 모자라는 곳에서는 문자를 아는 관노비를 임시 향리로 삼는 일도 있었다. 관노 가운데도 아전의 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임금이 “사람들이 ‘각 고을에 향리가 지나치게 많아서 민간에 폐단을 일으킨다’고 말하는데 믿을 수 있는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했다. “신이 듣건대 향리가 지나치게 많은 고을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적은 고을도 있다고 합니다. 신이 아는 바로는 홍산현(鴻山縣, 충남 부여)과 같은 곳은 향리가 심히 적어서 그 관노 가운데 문자를 아는 자를 가향리(假鄕吏, 임시 향리)로 삼았으니, 비록 숫자의 많고 적음이 같지 않더라도 폐단을 일으키는 것은 한가지입니다.”(문종실록 1년<1451> 1월 3일)

이두는 행정 전문어였기에 평민이나 여성은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어서 한글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주도해서 만든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누가 한글을 만들었는지 가르치지 않고 있다. 봉건시대에 지배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민을 착취했다고 하다보니, 왕이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세종이 어떻게 한글을 만들었는지는 설이 많은데, 옛날 문헌을 몇 개 찾아보겠다.

우리나라의 언문 글자는 모두 범자(梵字, 고대 인도 문자)를 모방한 것이다. 세종 임금 때에 처음 기구를 설치하여 만들어 낸 것으로서, 교묘한 글자 제작은 실로 임금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라 한다(『지봉유설』 기예부, 서책).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설』(1614)에서는 인도 문자를 모방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와 달리 나중에는 화장실에서 발명했다는 속설도 등장했다.

세상에 “장헌대왕(莊憲大王, 세종의 시호)이 일찍이 변소에서 측주(廁籌)를 배열하다가 문득 깨닫고 성삼문 등에게 명령하여 창제했다”고 전한다(『청장관전서』 양엽기 蠶葉記 1, 훈민정음).

측주란 대변을 털어내는 막대기를 말한다. 과거에는 종이가 귀해서 이런 뒤처리용 막대기를 사용했다. 익산 왕궁리에서 발견된 백제시대 화장실에서 이런 막대기가 출토되었다(그림 3). 용변을 보면서 똥막대기를 이리저리 놓다가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세종은 다른 나라들에는 자기 음으로 된 문자가 있어서 자기 나라 말을 적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음운이 비록 중국 말과 다르지만, 어금닛소리·헛소리·입술소리·잇소리·목구멍소리, 소리의 청탁과 고저는 중국과 같다고 하여 언문 자모 28자를 친히 만들었으니, 대궐 안에 기구를 설치하여 성삼문·최항·신숙주 등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했다. 이때에 한림학사 황찬이 죄를 지어 요동에 귀양가 있었는데, 성삼문과 신숙주로 하여금 북경으로 가는 사신을 따라가 요동에서 황찬에게 음운을 묻게 하였다. 요동에 13회나 왕래하였다(『동각잡기』 본조선원보록).



그림 3. 왕궁리 출토 촉주

이렇게 해서 탄생한 한글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개인에 의해서 창안된 유일한 문자가 되었다. 획을 하나씩 추가하면 다른 자음이 되어 자판 입력에 어느 문자보다 편리하다고 한다. 또 천지인 세 글자만으로 모음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이리하여 IT산업의 발달에 따라 더욱 주목받는 문자가 되었다. 훈민정음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593년 9월 왜란을 피해서 의주에 머물 때에 선조는 한글로 된 교서를 내렸으니, 현재까지 전해져 보물 951호로 지정되었다(그림 4). 전쟁 중에 왜적에 포로가 되어 협조하는 백성을 회유하는 내용이기애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쓴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직접 알려야 할 경우에는 한글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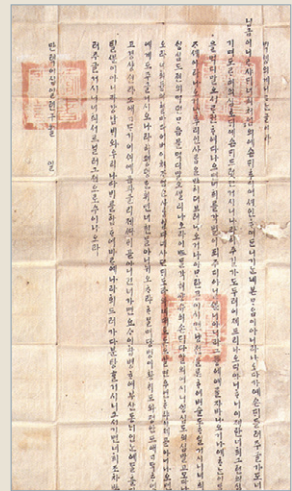


그림 4. 선조의 한글 교서

근래 인심이 옛날같이 없어서 이익 독점에만 매달리니, 도고(都賈, 도거리 장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도고를 혁파하지 않으면 백성의 풍속이 바르게 될 수 없고 백성의 살림이 넉넉해질 수 없으며, 장사치들이 통할 수 없고 저자가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 옛날 성군이 대궐문에 법령을 내걸었던 것처럼 지금 입법한 뜻을 진서와 언서로 써서 큰 길과 네 성문에 내걸어 어린아이가 영금영금 기어서 우물모 빠지듯이 향간의 백성들이 잘못하여 죄에 걸려드는 근심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정조실록 15년<1791> 6월 20일).

채제공이 이렇게 이익을 독점하는 도거리 장사를 금지하는 법을 백성에게 알리고자 한글로도 써서 방을 붙이기를 요청했다. 온 백성들에게 수소문할 때도 역시 그러했다.

한성부의 당상관과 당하관을 불러들여 『청암집』을 찾아왔는지 여부를 물었다. 끝내 찾을 수 없었다고 모두 대답하니, 임금이 한문과 언문으로 써서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여 유시하고 상금을 걸어 찾도록 했다(영조실록 47년<1771> 6월 3일).

『청암집』은 잘못된 태조의 계보를 적어서 금서가 된 중국책인데, 이것이 청나라로부터 들어와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이 책을 현상하여 찾아내도록 할 때에도 한문과 함께 언문으로 써서 공고하였다. 이처럼 백성에게 알릴 때에는 언문으로 공포하였다. 때로는 백성을 모아 놓고 언문으로 번역하여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기도 했다. 정약용은

정부가 발표하는 글은 변려체의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백성들이 알기 어려우니, 주석을 달고 한글로 번역하여 백성들이 환히 알게 하라고 『목민심서』에 적었다.

그뿐 아니다. 손자의 육아일기인 『양아록(養兒錄)』을 쓴 이문건(1494~1567)이 부모 무덤을 만든 뒤에 자신이 직접 새긴 비석을 새웠는데, 여기에 한문과 함께 “녕흔 비라 거운 사름 먼 지화를 니브리라 이논 글 모르는 사름 드러 알위노라”라는 한글 경고문을 넣었다. “신령한 비석이라 쓰러뜨리는 사람은 재화를 입으리라. 이는 글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노라”는 말이다. 새롭게 조성한 묘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아서 1990년대 초 택지개발 때에 우여곡절을 겪었다. 새 도로가 이 비석을 지나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의 반대로 이전하지 못하여 비석이 있는 곳에서 도로가 좁아지게 되었다. 결국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1998년 원래 자리에서 15m 정도 뒤쪽으로 옮겼다(그림 5). 1536년에 세운 이 비석은 현존하는 한글 비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2007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있다.

한글은 여성의 글이기도 해서 ‘암글’이라고 낮추어 불렀다. 첩이 유희춘에게 보낸 편지는 한글로 썼다.

첩이 여전히 언문 편지로 잇꽃[紅花]을 청했다(『미암일기』 1570. 7. 24.).

말린 잇꽃은 어혈을 없애거나 월경을 순조롭게 하는 약재라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성일이 보낸 편지(그림 6)처럼 부인에게 보낼 때에도 한글을 많이 썼을 것이다. 2011년 6월 국립대구박물관에서는 ‘400년 전 편지로 보는 일상-과주 부부와 가족 이야기’ 특별전을 열었다. 진주 하씨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한글 편지가 172점이나 출토되어, 의병장 과재우의 종질인 과주(1569~1617)의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주고 받은 한글 편지를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과 같은 편지도 한글로 쓰였을 것이다.

집사람을 시켜 편지를 써서 누이에게 보내게 했다. 나는 손님 만나느라고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쇄미록』 1596. 12. 4.).

궁궐에서도 여성은 한글을 사용했다.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내훈』, 『곤범』 등의 교양서나 소설, 불경 따위는 한글로 만들어졌다. 한글 회고록인 『한중록』을 지은 혜경궁 홍씨가 내린 교서처럼 왕이나 신하들에게 지시를 내릴 때에도 언문을 썼다.

자전이 언문으로 하교했다. “역적 종친이 아직까지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가까운 섬에 놓여 있어 처음 먹은 마음을 이루지 못하니, 이 미망인은 살아 있는 보람이 없다. 나랏일을 생각하면 밤에도 잠을 이룰 수



그림 5. 비석 탁본과 세계일보 기사(1995. 1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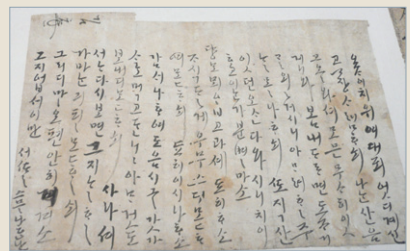


그림 6. 김성일 편지(2011. 7.)

없다. …” 자전이 또 언문 교지를 내렸다. “조금 전에 언문 교지를 조정에 내려 협력해주기를 기다렸는데, 밤이 이렇게 깊어지도록 소식이 없으니 어찌된 일인가? …” (정조실록 14년<1790> 11월 18일)

성종이 즉위하였을 때는 13세에 불과하여 세조의 비였던 정희대비가 7년간 수렴정정을 했다. 처음에 대비는 한문을 모른다고 해서 사양을 했었다.

대비가 “나는 문자를 모르니 정사를 듣고 처리하기가 역시 어렵겠다” 하니, 신숙주가 “승지가 문자를 해석하여 아뢴다면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고 대답했다. 대비가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직접 들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성종실록 1년<1470> 1월 13일).

궁중 여성들은 한문을 모르니 이들에게 전할 때에도 언문으로 썼다.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를 폐비할 때도 그러했다.

윤씨가 폐위된 뒤에 임금은 항상 언문으로 그 죄를 써서 내시와 승지를 보내어 날마다 장막을 사이에 두고 읽어 허물을 고치고 중궁에 복위되기를 바랐으나, 윤씨가 끝내 고치지 않으므로 마침내 사약을 내렸다. 연산군이 왕위를 잇자 그 당시의 승지들을 모두 죽였는데, 채수는 언문을 알지 못하므로 홀로 죽임을 면했다(『연려실기술』 성종조고사본말, 윤씨 폐사).

이 사건처럼 사대부 가운데는 한글을 몰라서 죄를 면한 경우가 있다. 김우증이 화살을 두 세 번 쏘아서 투서한 것은 조정을 문란시키는 행위라 하여 처벌하기를 요구하자, 중종은 이렇게 대답했다.

화살을 쏜 일을 추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우증이 이미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했고, 화살에 맨 글이 반은 예서(隸書)이고 반은 언문이라서 이와 비교하려고 김우증을 시켜 언문과 예서를 각각 몇 줄씩 쓰게 해 보니 크게 달랐다. 언문에 대해서는 김우증의 가까운 친족이나 노비들도 모두 “알지 못한다”고 하니 그의 행위가 아닌 것 같다(중종실록 14년<1519> 3월 4일).

열시를 받던 한글은 근대에 와서 새롭게 주목되었다. 근대적인 민족의식이 형성되면서 우리 글에 대해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다. 최초로 중두법을 실시한 인물로 알려진 지식영(1855~1935)은 한글 보급에도 힘을 썼으니, 다음은 고종에게 아뢴 말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모두 자국 문자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 통용하는데, 대체로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 그 사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각종 문학들을 모두 자국 문자로 번역 출판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대륙의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글을 알고 시국에 통달하여 날이 갈수록 문명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통상을 맺은 지 몇 십 년이 지났으나 어물어물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해한 한문에 인이 박혀 이해하기 쉬운 국문을 숭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고종실록 42년<1905> 7월 8일).

하지만 국한문 혼용만 해도 당시 지식인은 따르기 어려웠다. 조병세는 국상(國喪)을 총괄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조병세가 “국한문을 섞어 쓰는 서식을 신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신이 말고 있는 모든 보고는 마땅히 옛 규정대로 하겠습니다”고 아뢰니, 상이 “그렇게 하라” 하였다(고종실록 33년<1896> 10월 31일).

하지만 한문 전용 대신에 국한문 혼용으로 바뀌어갔고, 점차 한자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마침내 한글 전용으로 전환되는 길을 밟아왔다. 해방후인 1948년에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고 법에 명시했지만 여전히 국한문이 혼용되었다. 박정희 정권 때에 와서 한자 교육의 폐지 문제를 두고 논쟁이 붙었고, 이후에는 점차 한글 전용론자들이 힘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는 민족주의적인 사회분위기도 한몫을 했다. 마침내 1988년에 가로쓰기와 한글 전용을 추구한 한겨레 신문이 창간되고, 젊은층이 여기에 호응하면서 다른 신문들도 결국 한자를 줄여가기 시작했다. 또 1990년대에는 컴퓨터가 확산되면서 한글 전용은 대세가 되었다.

이러다보니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사이에 사고방식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성세대는 단어를 사고할 때에 한자로 치환하는 버릇이 있다. 한자로 생각할 때에는 ‘결제’와 ‘결재’를 쉽게 구분하지만, 한글로만 인식할 경우에는 혼란스럽다. 젊은세대는 ‘계’와 ‘재’를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많으니, 오자를 내는 방식이 옛날 세대와 다르게 되었다. 과로의 ‘로’와 ‘노동’의 ‘노’는 모두 노(勞)자로 두음법칙 때문에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자를 모르는 세대는 한자를 모르니 두음법칙의 원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라틴어를 모르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격이 된 것이다.

조어 형식도 달라졌다. 신문 표제어에 “제주도에 가면 다 있다”라고 쓰면서 이를 “多 있다”로 쓰는 등 한자 사용이 매우 파격적이다. 한글로 쓰게 되면 단어가 길어져서 이를 다시 줄여 쓰는 이름도 많이 등장했다. 1980년대 전반에 등장한 노래패인 ‘노찾사(노래를 찾는 사람들)’가 그런 호시라고 생각되는데, 그후로 웃찾사, 노사모니 하는 이름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부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어 붐이 일면서 다시 한자 교육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에서 이런 길을 걸어왔다고 한다면, 북한에서는 해방후에 바로 한글 전용을 실시하면서 한자를 거의 모르게 되었다. 이러다보니 지금 역사 연구자마저 한문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자가 사라진 빈 자리에 들어선 것이 영어이다. 김영삼 정권 때에 세계화란 명분을 등에 업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것은 민족주의에 경도된 사회분위기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천박한 세계주의라 비판했다. 이런 논란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다. 과연 싱가포르가 중국어 대신에 영어를 공용어로 택하여 발전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하는지는 판단을 잘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영어 공용론을 보자니, 조선시대에 한자를 전용하여 중국화하자는 주장을 폈던 박제가의 글이 떠오른다.

우리나라는 중국 땅에 가깝고 글자 소리가 대체로 동일하다. 모든 사람이 본래 말을 모두 버린다고 해도 불가할 이치가 없다. 무릇 그런 다음에야 오랑캐란 말을 면할 수 있을 것이요, 동쪽 땅 수천 리가 저절로 주·한·당·송의 기풍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니, 어찌 크게 유쾌한 일이 아닌가? (『북학의』 내편, 한어漢語) ☞

■ 참고 자료

1. 『고려도경』 (서경 재) ;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2. 『난중집록』 (조경남 저, 『대동야승』 수록) ;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3. 『동각잡기』 (이정형 저, 『대동야승』 수록) ;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4.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I, 창작과비평사, 1978 ; 누리미디어 홈페이지.
5. 『미암일기』 (유희춘 저) : 담양향토문화연구회, 『미암일기초』 1992 ;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6. 『북학의』 (박제가 저) ; 안대희 옮김, 『북학의』 돌베개, 2003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7. 『쇄미록』 (오희문 저) ; 이민수 역, 『쇄미록』 상·하, 해주오씨추탄공파종중, 1990 ;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8. 『양서』 신라전.
9. 『연려실기술』 (이금익 저) ;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10. 조선왕조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11. 『지봉유설』 (이수광 저) ; 이종술 등 역, 『지봉집, 지봉유설』 한국의 사상대전집 19, 동화출판공사, 1977 ;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12. 『청장관전서』 (이덕무 저) ;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 사진 출처

1. 중성리 신라비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송기호 사진.
2. 다호리 붓과 손칼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송기호 사진.
3. 왕궁리 출토 축주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4. 선조의 한글 교서 ; 문화재청.
5. 비석 탁본과 세계일보 기사.
6. 김성일 편지 ; 장서각 전시, 송기호 사진.

기획 : 학회 사무국 solasys@ksce.or.kr



신간 소개

면진리모델링설계지침 및 실무사례집

- 저 자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 출판사 : 구미서관 • 판매가 : 20,000원 • 면 수 : 197면 / 4배판

본 기술서는 신축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많은 기존 건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킴에 있어 건물의 존재가치를 손상시키는 새로운 구조부재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 건물의 지진 안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면진을 이용한 리모델링의 구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NEHRP 가이드라인 및 일본의 실증사례를 근간으로 기존 건물의 내진성능 평가부터 면진을 이용한 구조설계와 해석 지침뿐만 아니라 설계예제와 시공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